



뒤돌아보는 1978

역사는 여기에서 전환된다

— 등청림 편저 —

일부사람들은 진리의 표준문제에 대한 토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서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이 글이 이론상에서 “황당하고” 사상상에서 “반동적이며” 정치상에서 “기치를 찍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관건적인 시각에 등소평은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시하여 진리표준문제에 관한 토론을 지지하였다.

중앙사업회의가 결속될무렵에 등소평은 저명한 연설을 발표하였다. 바로 이 연설이 후에 제3차 사상해방운동의 선언서로 불리우게 되었다.

연변인민출판사

뒤돌아보는

1978

역사는 여기에서 전환된다

동청림 편저

김봉용 조성희 번역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金成浩、李善姬
责任校对: 申芬姬
技术设计: 张学峰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回首1978: 历史在这里转折: 朝鲜文 / 童青林著;
金峰雄, 赵星姬译.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11
ISBN 978-7-5449-0712-5

I. ①回… II. ①童… ②金… ③赵… III. ①中国—
代史—史料—1978—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70.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208558号

回首1978 —— 历史在这里转折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960 × 640 1/16 印张: 28.25 字数: 488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712-5 (民文)

版次: 2009年11月第1版 2009年11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5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례

제1장 생사에 관계되는 선택 / 1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이 서거하자 “4인무리”는 최고지도권을 찬탈하는 활동을 다그치었다. 화국봉은 격리심사하는 방식으로 “4인무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결정하였다. 리선님은 찬동을 표시하면서 “당신은 중앙의 제1부주석이므로 이 투쟁은 당신이 지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앞장서기만 한다면 인민들은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하고 말하였다. 이번 행동의 관건적인 인물인 엽검영은 “이것이 위험한 거름”임을 깊이 알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행동에 과단성이 있어야 하고 더욱 주밀하여야 하며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

강정일당이 격리심사를 당한 이튿날 아직도 “수감(禁錮)”상태에 처하여있던 등소평은 자기가 오래동안 바라고있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드디어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시기를 견디어낸 등소평은 감개무량하여 “보아하니 내가 만년을 편안히 보낼수 있게 된것 같구나!” 하고 말하였다.

1. 1976년 “천안문사건”이 “반혁명정치사건”으로 성격이 규명되다 / 2
2. 엽검영이 “마지막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4인무리”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11
3. “두가지 무릇”이 등장하다 / 23
4. 등소평이 복권하게 된 시말 / 39

57 / 제2장 전환의 전주

1977년 중국은 전례없던 대학입시를 맞게 되었다. 전국각지에 설치된 시험장소만 하여도 근 1만여개에 달하였다. 일시에 종이값이 폭등하여 종이부족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중공중앙에서는 《모택동선집》 제5권의 출판에 수요되는 종이를 드디어 쓰도록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입시의 회복은 전국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켜 “란을 다스리고 정의를 회복시키는 첫 나팔소리”로 불리우게 되었다.

당시 방치되었던 많은 일들이 다 손보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대학입시제도도 아직 완전화되지 못하고있었지만 전사회적으로 모두 공정하고도 평등한 인문(人文)적분위기로 차넘치고있었다. “스스로 분투하여 일떠서자”는것이 당시에 아주 유행된 가치관념으로 되었다.

류심무의 단편소설 “담임선생님”이 발표된뒤 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중국의 첫번째의 “상처”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예계가 드디어 “해빙(解冰)”기를 맞게 되어 “상처문학”이 중국문단에 등장하였다.

1. “두가지 평가”가 드디어 끝장나다 / 58
2. 대학입시제도가 회복되다 / 73
3. 등소평이 교원을 존중할것을 강조하여 교육사업이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다 / 88
4. 중국이 전례없던 대학입시를 맞게 되다 / 103
5. 한부의 소설이 거대한 반향을 몰고와 문예령역에서 ‘해빙기’가 시작되다 / 123
6. “과학의 봄” / 132

제3장 억울하고 날조되고 잘못된 안건들을 청리하다 / 152

호요방이 중앙조직부에 온지 한달도 못되어 거의 매일마다 몇백명씩 신소하러 왔고 올라 온 편지는 여섯마대도 넘었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사건이 산같이 쌓여 진전이 아주 힘들었다”는 것이다.

호요방은 이렇게 명확히 표시하였다. 력사적으로 억울하고 날조되고 잘못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사확인을 거쳐 무릇 사실이 아닌 죄명, 무릇 불정확한 결론과 처리에 한해서는 어느때,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든간에 어느 조직, 어떤 사람이 결정하고 비준하였든지간에 모두 실사구시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1. 호요방은 “우리가 기름가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들어가겠는가!”고 태도를 표시하였다 / 153
2. 중앙조직부에 부임하다 / 168
3. “61명 변절자집단”사건으로부터 돌파구를 열다 / 180
4. 마지막 한패 우파분자들이 감투를 벗다 / 193
5. “동회주(童怀周)”와 “천안문사시(史诗)” / 203
6. 연극 “침묵속에서(于无声处)”가 “금지구역”을 깨뜨리다 / 211
7. 북경시당위에서 “천안문사건”은 혁명적행동이라고 긍정하다 / 220

243 / 제4장 진리표준의 대토론

일부 사람들은 진리의 표준문제에 대한 토론에 의문을 가지고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이 글이 리론상에서 “황당하고” 사상상에서 “반동적이며” 정치상에서 “기치를 찍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형세는 갑자기 긴장해났다. “당시의 고기압으로 하여 이미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침통하게 검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런 압력하에 호요방은 지어 “좀 랭각시 킵” 궁리까지 하였다.

관건적인 시각에 등소평은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시하여 진리표준문제에 대한 토론을 지지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두가지 무릇”이라는 의문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지 않은가? 무릇 모택동동지가 심열하신 문건들은 모두 다쳐서는 안되고 무릇 모택동동지가 한 일,

말씀한것들은 모두 다쳐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이 그래 모택동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드는것이란 말인가? 아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모택동사상을 훼손하게 된다.

1. 작은 간행물이 놀라운 작용을 발휘하였다. 호요방은 내가 죽은후에라도 이에 관한 글을 써야 한다고 했다 / 244
2.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가 토론을 야기시키다 / 258
3. 관건적인 시각에 등소평은 진리의 표준문제에 대한 토론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시하였다 / 278
4. 만일 곤장을 때린다면 내가 40대를 맞겠노라고 라서경이 표시하였다 / 296

제5장 농촌개혁의 흥기 / 317

중국농촌개혁에 대하여 등소평은 한 외국손님에게 아래와 같이 소개한바 있다. 시작될 때 두개의 성이 앞장섰는데 하나는 조자양이 장악하고있던 사천성이다. 그건 나의 고향이다. 다른 하나는 만리가 장악하고있던 안휘성이다.

중국농촌개혁의 력사상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안휘성 봉양현의 소강촌이다. 사실 소강촌에서 호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한것은 비서현 산남구보다 약간 늦었다. 무슨 원인으로 하여 소강촌의 영향이 산남구보다 훨씬 커지게 된것인가? 가장 설복력이 있는 해석이라면 바로 소강촌의 농민들이 “도거리(大包干)”를 실시하였을뿐만아니라 경작지를 각 농호에 나누어줄 때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는데 있다.

만일 만리의 지지가 없었다라면 경작지를 각 농호에 나누어주는 일은 실현될수 없었을 것이다. 만리가 안휘성에서 과감히 “외나무다리”를 건널수 있었는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등소평이 경작지를 각 농호에 나누어주는데 대하여 대폭적인 지지를 하였던것이다.

1. 안휘성당위에서 “6조 규정”을 제기하였는데 중국농촌개혁의 서막은 여기로부터 열렸다 / 318
2. 인민공사체제를 깨뜨림에 있어서 안휘성과 사천성 두 성이 훌륭하게 앞장섰다 / 329
3. 산남사람들은 “금지구역”에 뛰어들었고 소강촌농민들은 가만히 경작지를 나누었다 / 342

365 / 제6장 중국의 운명을 개변시킨 회의

화국봉의 연설에는 취할만한 곳이 있었다고 우광원이 회상하였다. 사람들에게 준 인상으로 말하면 "화국봉은 확실히 열성적으로 건설하려는 사람이고 정황도 꽤찮게 장악하였으며 사상도 개방되었다. '4인무리'를 분쇄한뒤 그는 확실히 좀 성과를 내보자고 하였다." 하지만 화국봉은 연설에서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구호를 사용하는것을 중지하

뒤돌아보는 1978

역사는 여기에서 전환된다

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설의 작용은 많이 약화되었을뿐만 아니라 한차례의 격렬한 논쟁을 초래시켰다.

중앙사업회의가 결속될 무렵에 등소평이 유명한 연설을 발표하였다. 바로 이 연설이 나중에 제3차 사상해방운동의 선언서로 불리우게 되었다.

1. 진운의 발언이 회의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키다 / 366
2. 화국봉이 중앙정치국의 중대한 결정을 선포하다 / 375
3. 두가지 농업문건을 둘러싼 논쟁 / 386
4. 진리의 표준문제가 또다시 초점이 되다 / 400
5. 등소평의 “선언서” / 418
6. 천하의 대세를 일변시킨 회의 / 433

후기 / 445

제1장 생사에 관계되는 선택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이 서거하였다. “4인무리”는 최고지도권을 찬탈하는 활동을 다그쳤다.

화국봉은 격리심사하는 방식으로 “4인무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결정하였다. 리선님은 “당신은 중앙의 제1부 주석이므로 이 투쟁은 당신이 지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앞장서기만 한다면 인민들은 당신을 지지할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번 행동의 관건적인 인물인 엽검영은 이것이 위험한 “겨룸”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행동에 과단성이 있어야 하고 더욱 주밀하여야 하며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

강청일당이 격리심사를 당한 이튿날 아직도 “수감”상태에 처했던 등소평은 자기가 오래동안 바라고있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드디어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낸 등소평은 감개무량하여 “보아하니 내가 만년을 편안히 보낼수 있게 될것 같구나!” 하고 말하였다.

뒤돌아보는
1978

1. 1976년 “천안문사건”이 “반혁명정치사건”으로 성격이 규명되다

1976년 10월 중공중앙정치국에서는 왕홍문, 장춘교, 강칭, 요문 원에게 격리심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10년 남짓이 계속되어오던 “문화대혁명”을 결속짓게 되었다. 이 중대한 역사적사건의 의의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수 있는것인바 만일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중공 11기 3차 전원회의라는 전환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4인무리”를 분쇄한것은 이 역사적인 전환을 위해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수 있다.

이해 4월 청명절기간에 발생한 “천안문사건”은 왕, 장, 강, 요 “4인무리”를 분쇄하기 위한 강유력한 군중적인 토대를 다져놓았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주은래의 서거에 있었다. 주은래의 서거와 함께 장례기간에 “4인무리”는 갖은 금지령들을 발표하여 군중들의 추모활동을 저해함으로써 군중들의 지대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뒤 “4인무리”는 또 이에 대해 갖은 간계를 부리고 흑백을

[사진: 주은래에 대한 추모활동이 점차 “문화대혁명”에 대한 불만과 “4인무리”에 대한 공소로 옮겨졌다.]



전도함으로써 모택동과 중앙정치국에서 천안문사건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고 동시에 등소평에 대해 잘못 처리하게 만들었다. “천안문사건”에 대한 성격규명을 모택동이 동의하였던 까닭에 이 사건은 그뒤의 이태동안에 극히 민감한 화제로 되었다.



[사진: 남경대학 교원, 학생들의 집회장면]

1976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경시의 학생과 시민들은 주은래를 추모하고 “4인무리”를 반대하는 시위행진을 자발적으로 거행하였는데 “주은래를 보위하자”, “대야심가, 대음모가 장춘교를 타도하자”라는 표어를 내붙인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지어 표어를 남쪽으로부터 북행하는 기차우에다까지 내붙이었다. 이런 거동들은 “4인무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3월 30일 왕홍문은 《인민일보》의 한 책임자에게 당신들 신문사가 남경에 기자들을 두고있는가고 전화로 물었다. 그러면서 만일 기자들을 두고있다면 그들더러 “중요한 정황”을 반영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왕홍문은 또 남경의 큰 거리에 장춘교를 타도하자는

뒤돌아보는
1978

대자보를 내붙였다는데 “그런 대자보들을 붙인것은 반혁명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강소성에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가 있으므로 남경사건의 성격은 “중앙에 대항하는것”이라고 하였다.[1]

이날부터 4월 26일까지 왕홍문, 요문원 등은 선후하여 《인민일보》의 책임자에게 24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그 내용은 첫째, 군중들이 주은래총리를 추모하는 활동을 반혁명적성격으로 규명한것이고 둘째, 등소평을 무함한것이며 셋째, 그들과 과감히 투쟁하는 군중들을 타격한것이며 넷째, 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자기들의 여론을 조성한것이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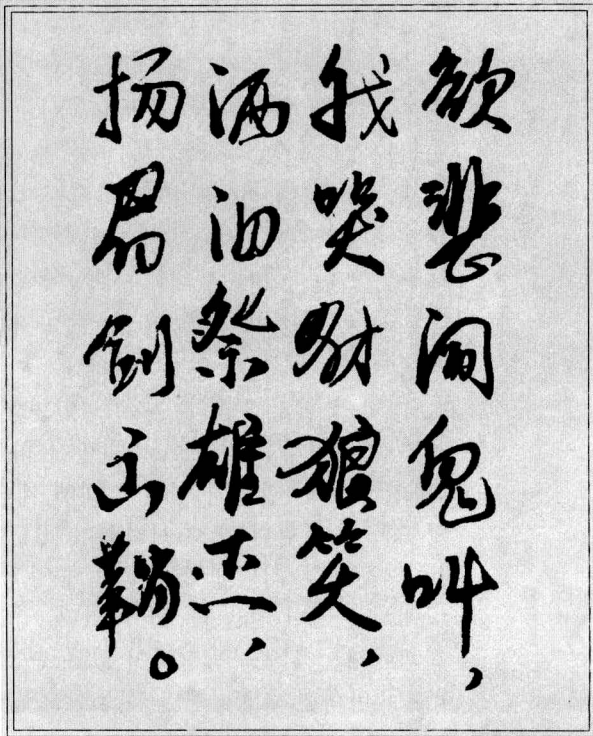
[사진: “4.5”운동기간에 누구인가가 천안문광장에서 연설을 발표하여 시정(時政)을 규탄하는 장면]

4월 1일 중공중앙에서는 각지에 통지를 보내어 남경사건은 “등소평을 비판하는 대방향을 돌려세우려는 정치사건”이라고 언명하면서 각지에서는 “막후획책자”와 “요인날조자”를 추궁하라고 요구하였다. 바로 이날 산서성의 한 청년이 인민영웅기념비에다 나중에 광범히 류전이 되었던 시사 한수를 내붙였다.

“귀곡성 슬프게 들리는데/ 나는 통곡하고 늑대는 웃누나/ 눈물 휘 뿌려 영웅을 제 지낼제/ 눈섭을 치켜뜨고 검을 뽑아드노라”

왕홍문은 4월 2일 《인민일보》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은 한갈래의 “반혁명역류로서 보아하니 사령부가 있는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천안문앞 기념비에 가서 화환을 드리고 주총리를 추모하는것은 당면의 등소평을 비판하는 정신에 맞지 않으며 중앙에 대립하고 등소평비판을 파괴하는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신문사에 “계속하여 ‘우경변안풍에 반격을 가하며’ 투쟁의 대방향을 장악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튿날 요문원은 전화를 걸어 “투쟁의 대방향을 튼튼히 틀어쥐어야 한다”는 제목의 론설 한편을 써내는것이 어떤가고 말하였다. 먼저 당면의 “우경변안풍을 반격하는” 투쟁형세가 아주 좋고 당내의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그 집권파가 이미 아주 고립되어있다는것을 말하라는것이였다. “이런 형세하에서 우리들은 투쟁의 대방향을 튼튼히 틀어쥐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 다음 “계급투쟁이 아주 치열한바 계급적원수들의 파괴를 방지하며 요언을 추궁하여야 함”을 말해야 한다는것이였다.[3] 론설에 무엇을 쓰는가 하는것을 요문원은 이미 잘 생각해두었던것이다. 론설이 다 써여진 뒤 그는 또 몇마디를 첨가하였는데 “반드시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투쟁으로부터 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경향과 구호들의 계급적실질을 분석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4]

청명절날 천안문광장의 추모활동은 고조를 이루었다. 광장에 나간 사람들의 수자가 200만명이 넘었다. 갖



[그림: “4.5”운동기간에 인민영웅기념비에 내붙였던 한편의 시작품.]

고 온 화환이 2000여개나 되었을뿐만아니라 많은 시사들이 썩어졌다. 그중의 한수는 이러했다.

“황포강우에 다리가 놓였는데/ 다리는 이미 썩어 흔들리누나/
다리가 흔들려 무너질 지경인데/ 허물어야 할지 불태워야 할지 지시
해주길 바라노라”

과학원 109공장의 종업원들이 “붉은 마음 이미 승리의 과실을 맺
었고/ 푸른 피가 다시 혁명의 꽃으로 피어났거니/ 아직도 마귀가 독있
는 화염 내뿜는다면/ 여기 요키 잡아낼 사람이 있노라”라는 시를 썼다.
이 시가 후에 《인민일보》사에서 묶어낸 천안문사건에 유관된 《정황모
음편교료지》에 실리었다. 하지만 요문원은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적으로 외곡된 해석을 하였다. “이른바 ‘다시 핀 혁명의 꽃’이란 바로
사회주의혁명과 ‘우경변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을 뒤엎으려는것이
다.”[5] 그 결과 이 공장의 지도자는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
란 감투를 쓰게 되었고 30여명이 격리심사를 당하였으며 3명이 체포
되었다.

《인민일보》기자가 또 천안문광장에서 뼈라 한장을 베껴왔는데
그속에는 아래와 같은 몇마디의 말이 있었다. “주총리가 병환에 계신
기간에 등소평동지가 중앙사업을 주관하여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취득하였다. 등소평동지가 다시 중앙사업을 주관한것으로 하여 전국인
민은 마음이 후련해지였다.” 그 결과 요문원은 제멋대로 외곡하여 등
소평을 “헝그리아반혁명사건의 두목 나지”라고 모욕하였다.

이와 동시에 요문원은 또 한번 《인민일보》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문 인민영웅기념비앞에서의 활동은 “반혁명성격”을 가졌다
고 명확히 말하였다. 그는 또 《인민일보》사에 “첫째로 등소평비판을
단단히 틀어쥐고 둘째로 반혁명에 타격을 가하며” 신문사내부에서는
“마땅히 이런 활동의 성격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성격을 똑똑히 인식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6]

4월 4일 저녁에 화국봉은 중앙정치국회의를 소집하여 천안문광
장에서 발생한 일들을 토론하였다. 엽검영, 리선님은 참가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천안문광장에서 있는 추모활동은 “반혁명이 저지른 사건”
이고 “반혁명이 군중들을 선동함으로써 주석과 중앙을 반대하고 투쟁



[정명절전야에 북경의 근 백만이나 되는 군중들이 런 며칠동안 천안문광장에 회환을 중송하고 시사를 읊으면서 주은래를 추모하고 “4인무리”를 성토했다.—시진]

의 대방향을 교란, 파괴하려는것이다”라고 인정하였다. 강청은 회의에서 광장에 있는 화환들을 청리하고 “반혁명분자”들을 체포하겠노라고 떠들어댔다.

이튿날새벽에 천안문광장에 있던 화환들과 시사들이 하루밤사이 에 몽땅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인민영웅기념비주위에는 세걸의 봉쇄선이 포치되었다. 군중들과 민병, 경찰과 군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 쌍방에 모두 부상자가 생기었다. 오후 6시 30분 북경시당위 서기 오덕이 방송연설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극소수의 만심보를 품은 나쁜 놈들이 청명절을 리용하여 고의적으로 정치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예봉을 직접 모주석과 당중앙에 돌리었으며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과 등소평의 수정주의로선을 비판하고 ‘우경변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대방향을 돌려세우려고 망녕되게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 정치적사건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자들의 음모계계를 간파하고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는 또 천안문광장에서 “나쁜 놈들이 파괴와 교란을 진행하고 반혁명파괴활동을 진행하고있다”고 말하면서 “혁명적군중들은 마땅히 즉시 광장을 떠나라”고 요구하였다.[7] 이날 왕홍문은 친히 천안문광장에 달려와 주재하고 지휘하면서 경찰들더러 “가

뒤돌아보는
1978

장 나쁜 놈들은 따라가다가 천안문을 떠나게 되면 붙잡으라”고 했다. 오덕의 연설이 있던 세시간후에 1만여명의 민병과 경찰들이 손에 곤봉을 들고 천안문광장을 봉쇄하였으며 군중들을 구타함과 아울러 30여명을 체포하였다.

바로 이날의 깊은 밤에 요문원은 《인민일보》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써놓은 “투쟁의 대방향을 튼튼히 틀어쥐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론설을 이튿날 신문에 실으라고 요구하였을뿐만아니라 또 “제1면의 톱기사”로 테두리를 쳐서 다루라고 요구하였다. 요문원은 이 책임자더러 신화사에 당일로 방송하도록 전달하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래일중으로 몽땅 내보내고 방송국에서는 래일아침 6시 반에 방송하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또 이 책임자에게 “이 론설이 반혁명에 대한 호된 타격이 될것인바” “오늘저녁에 동무는 론설을 발표하는 일을 잘해야 하오. 이것은 내가 동무에게 주는 정치임무요.” 하고 당부하였다.[8]

4월 6일 이른아침 중앙정치국의 부분적인 위원들이 북경시당위의 회보를 청취하고나서 천안문사건이 “반혁명폭란성격”을 갖고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되도록 빨리 전국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령부를 붙잡아내라”고 공안부문에 지시하였다.

모택동의 기밀비서인 장옥봉의 회억에 의하면 이 며칠사이에 모원신이 정상적으로 모택동한테 찾아와서 정황을 회보하였다는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정치국의 동지들이 밤을 깨면서 회의를 하였는데 천안문앞에서 발생한 사건이 고립적인것이 아니며 한차례의 웅그리아사건이 중국에서 재연된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또 “등나지”라는 소리도 있었다는것이다. 그리고 정치국에서는 천안문앞에 있는 모든 화환들을 소각해버리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오덕동지의 그 연설원고를 통과시켰다는것이다. “이 시기의 결정들은 모두 정치국에서 상의결정된 뒤 주석에게 보고되었다. 주석도 자세히 캐여물을 힘이 없어 그저 머리를 끄덕이면서 알았다는것을 표시할따름이었다.” 4월 6일의 중앙정치국 회의이후 모원신은 회의보고서를 모택동에게 보내었다. 모택동은 보고서에 서면의견을 써넣음으로써 정치국의 처리의견에 동의하였다.

이 기간에 《인민일보》의 통신원과 기자들이 “천안문광장에서의 반혁명사건”이라는 보도를 썼다. 요문원은 《인민일보》의 책임자에게 “선명하게 등소평의 이름을 찍으라”고 지시하였다.[9] 이 보도에는 4

월 5일 천안문광장에서 발생한 정황들이 상세히 서술되었는데 사실의 진상을 외곡하고 이 사건은 “한줌도 못되는 계급의 적들이 청명절에 주총리를 추모한다는 허울됨에 미리 음모하였으며 계획적이고도 조직 있게 조작해낸 반혁명적정치사건이다”라고 인정하였다.

장춘교, 요문원과 《인민일보》의 그 책임자는 “귀곡성 슬프게 들으며”라는 이 시와 다른 한수의 시를 한데 짜깁고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이 보도에 끼워넣음으로써 이것을 근거로 삼아 “반혁명분자들이 어떻게 극히 썩어빠진 반동적언어로써 위대한 수령 모주석과 당중앙의 기타 지도자들을 빗대고 중상하고 악독하게 공격, 모욕하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 하였다.

4월 7일 오전 모택동은 모원신의 회보를 청취한 뒤 천안문사건에 대하여 중앙정치국에서 취한 조치를 긍정하였다. 그는 또 중앙정치국에서 첫째, 화국봉이 중공중앙 제1부주석, 국무원총리를 담임하게 하며 둘째, 등소평의 당내외의 모든 직무를 철소시키고 당적을 보류하여 이후의 효과를 보도록 하는 두가지의 결의를 지을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이 두가지 결의와 천안문사건에 유관되는 보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할것을 주장하였다.

오후에 거행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강칭은 등소평이 천안문사건의 총적인 막후지휘자라고 물고늘어지면서 등소평이 차에 앉아 현장에 와 지휘하였다고 터무니없이 떠들었으며 등소평을 잡아낼것을 제기하였다. 왕동홍이 모택동에게 회보하자 모택동은 당장에서 지시를 내려 사람들이 등소평을 충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는 중공중앙의 두가지 결의와 “천안문광장의 반혁명정치사건”에 관한 보도 그리고 오덕의 방송연설을 발표하였다. 이튿날 《인민일보》 등 여러 주요 신문잡지들에서도 이 두가지 결의를 보도하였다.

소식이 발표된후에도 여전히 계속 항의가 거행될줄 누가 알았으랴. 누구인가가 “등부주석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강칭, 요문원, 장춘교를 타도하자”라는 표어를 내붙이였다. 또 누구인가가 진화와 서신상으로 《인민일보》사에 “천안문사건”의 진상을 외곡하여 보도한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어느 편지에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당보가 타락되다니! 당신들이 연기하는 이 ‘국회방화사건’은 실로 고명하지 못하다”고 씌여있었다.[10]

뒤돌아보는
1978

“천안문사건”은 “4.5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지로는 한차례의 사상해방운동으로서 민족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10년이나 지속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에 심대한 재난을 갖다주었고 사람들의 원한과 분노를 초래하였다. 사람들은 워낙 사회질서를 회복시키고 정확한 방침을 집행할데 대한 희망을 주는데, 등소평 등 로세대의 혁명가들에게 두고있었는데 그들이 도리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것이다. 이것이 더군다나 “4인무리”에 대한 인민군중의 증오와 원한을 불러일으켰는바 천안문사건이 바로 이런 증오와 원한의 집중적인 폭발이었던것이다. 이 운동은 실질상에서 또한 등소평을 대표자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정도를 옹호하는것으로서 인심이 쏠리는바를 나타내었다. 11년 후 등소평은 외국벗과의 담화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1976년의 “4.5운동”에서 인민들은 주총리를 그리워하였는데 나를 지지한것도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1974년부터 1975년까지의 개혁이 아주 인심을 얻었고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했다는것을 입증해준다.